

“경제 발전 우선 과제는 양극화 극복”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 김상조 “성과공유 강화, 협력업체 최저임금 비용 상승 부담 덜어줘”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6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극화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상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상생이 규정된 것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실을 감안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디스플레이, 포스코, SK하

이닉스 등 대기업과 만도, 대덕전자 등 중견기업 150개사가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 공유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체의 기술력을 높이고 그러한 중소기업체의 뒷받침 속에서 대기업들도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낮은 원가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과공유의 효과가 한계소비성향이 큰 중소기업에 속속 근로자에게까지 충분히 돌아가면, 기계소득 증가→소비증가→기업 매출증가로 이어지

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도요타와 핀란드의 코네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어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도요타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부품 단가를 더욱 낮추는 선택을 했지만 일부 부품의 품질저하로 이어져 2010년 대량 리콜사태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핀란드의 코네 엘리베이터는 250여개 부품 협력업체와 20~30년 이

상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품 단가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는 등 공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한 결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도 기업 간 상생협력에 보다 강화되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고 그 핵심이 공정거래협약 제도”라며 “협약을 통해 협력업체를 지원해 준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더 큰 이익으로 보상받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H농협카드, 올 원페이 회원 100만명 돌파

NH농협카드(사장 이인기)는 올 원페이 회원 100만명 돌파 기념 신규가입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2017년 1월 처음 출시한 올원페이(Allone Pay)는 NH농협카드의 온 오프라인 간편 결제 수단으로 고객 편의성도, 결제기능 추가, 고객센터 강화에 중점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현재는 월 평균 이용건수가 131만 건에 달하며 올해 말 회원 200만명 달성을 통해 카드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

다.

NH농협카드는 100만 돌파 기념, 6월말까지 매일 차수별로 올원페이 신규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골드바 1냥(37.5g), 1돈(3.75g), 채움 포인트(3만점)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SSG.COM에서 첫 결제시 3천원 캐시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서비스 이용방법 및 프로모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수호 기자

패션업계, 플라워 패턴 제품 출시

셔츠·스커트·팬츠·원피스 등 다양하게 적용

패션업계가 봄을 맞아 화사한 플라워 패턴 제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셔츠, 스커트, 팬츠, 원피스부터 가방, 신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난 6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폴 스미스는 옐로우 바탕에 블루, 바이올렛 등의 큼직한 플라워 패턴이 전체를 수놓은 셔츠와 스커트를 선보였다.

둘레 앤 가바나는 이번 컬렉션에서 플라워 프린트를 비롯한 다채로운 패턴을 입힌 상품을 통해 화려함, 개성을 돋보이게 했다.

다채로운 옐로우, 핑크, 레드 꽃 형태를 정교하게 표현했다.

마르니는 반팔 피케 셔츠에 큼직한 하늘색 플라워 프린트를 앞모양까지 세세하게 표현하고 굵은 테두리선으로 윤곽을 살렸다.

지것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화이트 색상 롱 민소매 원피스에 주홍색 플라워와 초록 줄기를 마치 수채화의 기법처럼 재색했다.

우아하면서 여성스럽고 동시에 생생하고 밝은 느낌을 준다.

엠펙시오 아르마니는 플라워 프린트 백팩도 선보였다.

블랙 바탕에 아기가자하고 화려한 플라워 패턴이 적용됐다.

/최수호 기자

전면 포켓 부분에 골드 메탈 로고 장식이 브랜드 정체성을 부각시켰다.

둘레 앤 가바나는 가방부터 지갑, 스니커즈에 이르기까지 화이트 바탕에 화사한 핑크색 플라워 패턴이 눈에 띄는 제품들을 선보였다.

한편, 폴 스미스는 화사한 핑크색 바탕에 마치 피어나는 듯한 그린 플라워 패턴이 적용된 지갑을 출시했다. 짙은 청색에 하늘색 플라워 패턴이 적용된 제품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영홈쇼핑 5년 재승인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영홈쇼핑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오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5일부터 2023년 4월14일까지 5년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공영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2.78점을 획득했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이다.

과라정통은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배점 240점 중 50% 이상인 181.13점을 획득, 기준 점수 이상을 얻어 재승인 기준을 충족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정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공영)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일부터 6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에서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기업 보호·지원, 시정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에 중점을 두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거래 등 공영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해,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4월 중 교부할 예정이다.

/최수호 기자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인문학 콘서트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전북은행 본점 3층 강당에서 '제 2회 JB 인문학 콘서트'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및 학부모, 인문학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시'라는 주제로 정호승 시인을 초청해 진행한다.

한국문단의 대표 시인 정호승 시인은 이번 강연에서 고희의 가치와 일상의 행복, 깨달음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를 토대로한 이

아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강연관람은 도민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4월 25일(수)까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또는 각 영업점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단체 접수는 전북은행 사회공헌부 250-7495로 문의하면 된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강연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문학이 주는 지혜를 통해 자기 성찰, 마음, 감성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맞춤형 금융상담·금융애로 해소

금융감독·자본센터·자산관리공·전주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전북자원봉사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는 6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전북은행 본점빌딩 9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내용은 전북도 내 농어촌 읍면지역 어르신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협력, 금융상담 및 교육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김소연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김기원 전북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강희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윤여옥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효과로는 전북도 내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어촌 읍·면지역의 어르신 및 농어민들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담 봉사활동 기반 마련과 전북지원봉사센터와 금융 공공기관간 금융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금융애로 해소 등에 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 전북자원봉사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는 찾아가는 금융상담, 교육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최수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